

사회

“음식·영화·공연 등 반 값에” ... ‘소셜 커머스’ 주의보

‘할인 티켓’ 총동구매 낭패 볼수도

허위·과장 광고, 환불 거부 등 피해 잇따라

#1. 회사원 이모(29·광주 남구 백운동)씨는 최근 ‘7만원 상당의 음식을 50% 할인해 준다’는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티켓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저렴한 가격과 화려한 광고 사진에 현혹돼 티켓을 산 뒤 가족과 함께 음식점에 갔지만 실제로 나온 음식의 맛과 양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싼 게 다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어 별다른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식당 문을 나서야 했다. #2. 대학생 김모(여·21)씨는 지난 달 ‘소셜 커머스’를 통해 8000원 짜리 영화티켓을 45% 할인된 장당 4500원을 주고 10장을 구매했다.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유효기간인 2개월

여 동안 친구와 함께 한 차례 영화를 봤을 뿐, 나머지 티켓 8장을 사용하지 못했다. ‘티켓 할인’에 솔깃해 불필요한 총동구매를 한 것이다. 김씨는 앞으로 ‘소셜 커머스’ 이용을 자제할 생각이다. 인터넷 상에서 1개의 상품에 다수의 구매자가 모여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소셜 커머스’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소셜 커머스’는 전자상거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가미한 것으로, 음식이나 영화, 공연, 미용 등 다양한 상품을 싸값에 구매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서비스다. 그러나 관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광고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제공이나 총동구매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내에서는 약 100여개의 ‘소셜 커머스’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소셜 커머스’ 활성화에 따른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한편, 총동구매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광고 내용과 다른 음식 제공 등 서비스 부실 제공 ▲티켓(쿠폰) 환불 거절 등 고객관리 미흡 ▲허위·과장 광고 등을 ‘소셜 커머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셜 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이면 저렴한 가격에 상품 이용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형식의 전자상거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모인 ‘소셜 커머스’란 이름이 붙여졌다.

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티켓을 구매하기 전 업체와 상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셜 커머스’ 관련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구청 4곳 등 20곳 압수수색

건축사 등 2명 체포

다세대 주택 불법 수사

광주지역 자치구의 건축 행정비리(광주일보 11월 24일 6면)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구청 4곳과 건축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광주시 동·서·남·광산구 등 4개 구청 건축과와 건축사 사무실 9곳, 건축사 자택 7곳 등 총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이날 건축사 A(50)씨와 건축사무소 관계자 B(51)씨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한 차례 서구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한 뒤 광주지역 5개 구청으로부터 건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다세대 주택 건축주 등이 불법 증·

개축을 했으나 일부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청 측의 목인이 있었거나 일부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에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일부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된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앞서 지난달 말경 경찰이 제출받아 실시한 서류조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이날 압수수색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189) 김장동



‘맛값 폭행’ 최철원씨 영상

‘맛값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몰류업체인 M&M 전 대표 최철원(41)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정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 등을 한 유모(52)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침여하려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맛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연습뉴스

주점 행패 30대 경찰 사타구니 물어

○광주남부경찰은 6일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타구니까지 물어 뜯은 이모(38)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검야 조사를.

○이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김모(여·58)씨의 주점에서 양주병과 카드체크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 모 지구대 소속 노모(38)경사의 사타구니를 입으로 물어뜯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김씨의 주점에 들어간 뒤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연행해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노경사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것. /김호기자 kimho@

철없는 외손녀

외할머니 뉘고 돈 훔쳐 남편은 밖에서 망

광주북부경찰은 6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외할머니 집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최모(여·35·광주 광산구 월곡동)씨와 남편 이모(40)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불검야 조사를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5일 밤 11시30분께 담양군 담양읍에서 사는 외할머니 서모(여·81)씨의 집에 침입해 전기장판의 전깃줄을 뽑아 서씨의 양손을 묶어 제압한 뒤 안방 서랍장 아래 숨겨둔 현금 2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당시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최씨는 범행 이후 양상에 가책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범인이 외손녀인 것을 안 서씨는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제빵업소 위생 점검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6일 한 제빵업소를 방문해 케이크와 과자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살펴보는 등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조금 수십억 뺏기기 ... 방제업체 회장·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헌 부장검사)는 6일 판매 실적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십억원을 더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친환경 방제업체 S사 회장 이모씨와

사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호남과 충청 일대 50여개 시군에서 전적을 활용해 해충을 박멸하는 미생물 농약을 판매하면

서 농민들의 이름만 빌려 판매량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서 90여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자체가 농민들의 친환경 농약 매입가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습뉴스

“우리 학교는 뽕뽕머리”

광주 한 고교생 ‘옆 0.5·뒤 2·앞 5cm’ 두발 규제 비판

광주의 한 고교생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자신의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두발 규제에 관해 쓴 누리집엔(?)한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광주 00고등학교의 두발 규제와 두발단속 실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A4용지 2매 분량의 글과 함께 짧은 머리한 고등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글쓴이는 서두에 ‘00고 두발 규정은 옆머리 0.5cm, 뒷머리 2cm, 앞머리 5cm’라고 밝힌 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두발규정 및 단속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쓴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면 존로크가 제시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이와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인간의 개성은 존중돼야 하며, 각각은 다른 신체적 차이에



따라 관용하는 정신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우리 학교는 개인의 이질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의 주관적인 규정에 따라(두발규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4만1115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글을 읽은 네티즌들 대다수는 ‘학교 측의 두발규정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최근 수능시험이 마무리되고, 학생들이 용모를 깔끔히 하면 즐거운 기분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규정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2월 20일